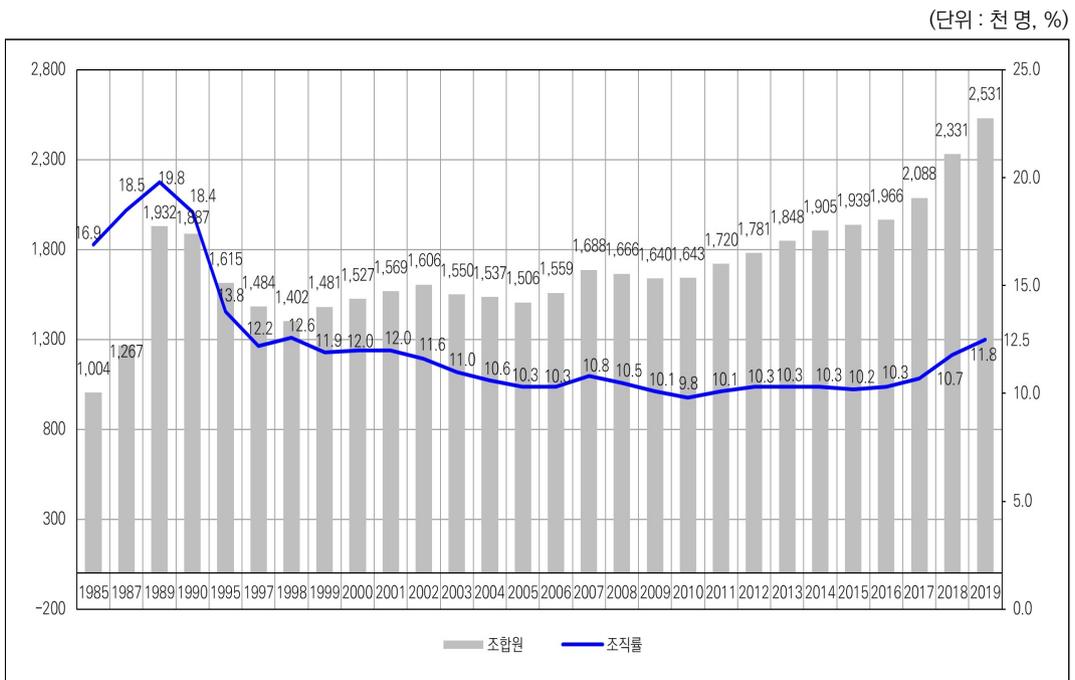


#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현황

-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원 수는 253만 명이고, 조직률은 12.5%임.
  - 조합원 수는 2017년 2,088천 명을 넘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.
  - 2020년 법내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7,622명, 전국교수노동조합 631명 등을 더하면 그 수는 2,579천 명이 됨.
  - 노동조합 조직률 또한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외환위기 극복 당시 수준인 12%대를 상회함.

[그림 1] 노동조합 조합원 수 및 조직률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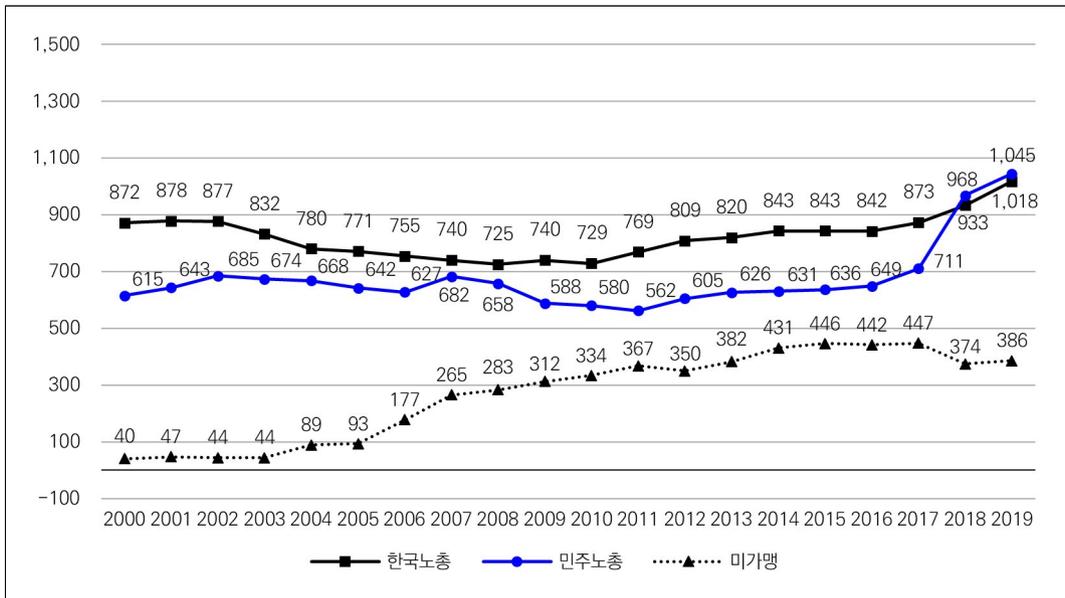
주: 1) 노동조합 조직률은 고용노동부의 산정방식임.  
 조직률=전체 조합원 수÷조직대상 근로자(임금근로자-노조가입이 금지된 공무원)×100  
 자료: 고용노동부 「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」의 내용을 재구성함.

○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 증가가 뚜렷하였으며, 2019년 양대 노총의 조합원 수는 각각 100만 명을 넘겼음.

-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는 2019년 1년 동안 민주노총이 76,637명(7.9%), 한국노총이 85,367명(9.1%), 미가맹이 12,532명(3.4%) 증가함.
-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증가한 민주노총 신규 조합원 21만 7,971명 가운데 공공 부문 노동자가 8만 2,564명으로 37.9%를 차지하였고, 가장 많이 늘어난 조직은 공공운수노조(5만 404명 증가)임(민주노총 보고서, 2019년 9월).
- 2019년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4만 7천 명을 내년 조사에 포함할 경우,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임.

[그림 2]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추이

(단위: 천 명)

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」.

○ 2019년 조합원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노조가 87.8%, 30명 미만은 1.1%를 차지하여 규모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음.

- 2019년 조합원 수 비율은 300인 이상 87.8%(2,221,072명), 30인 미만 1.1%(28,407명)이었음.
- 노조 수는 30인 미만 40.7%(2,505개), 300인 이상 13.4%(826개)이었음.
- 2018년 대비 2019년 조합원 수 비율은 300인 이상 0.3%p 증가, 30인 미만은 0.1%p 감소함.
- 노조 수 비율은 30인 미만 0.5%p, 300인 이상 비율은 0.3%p 감소함.

〈표 1〉 조합원 규모별 조직원 수(노조 수(비율), 조합원 수(비율))

(단위: 개소, 명, %)

		30인 미만	30~99인	100~299인	300인 이상
2018	노조 수 (비율)	2,392 (41.2)	1,556 (26.8)	1,061 (18.3)	793 (13.7)
	조합원 수 (비율)	27,313 ( 1.2)	88,129 ( 3.8)	175,893 ( 7.5)	2,040,297 (87.5)
2019	노조 수 (비율)	2,505 (40.7)	1,720 (28.0)	1,102 (17.9)	826 (13.4)
	조합원 수 (비율)	28,407 ( 1.1)	96,814 ( 3.8)	184,488 ( 7.3)	2,221,072 (87.8)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」.

○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조직률은 증가하겠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직률은 감소할 수 있음.

-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2020년 6월 말 기준 18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, 향후 1만 2천 명이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임(고용노동부).
-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조직률 감소 및 휴면노조의 증가가 예상됨.

(조규준, 동향분석실 연구원)